



◀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제8차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현수막 찢기 행사를 벌이고 있다.

### “즉각퇴진 조기탄핵”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촛불을 켜고 모여있는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쳤다.

그 어느해보다 더 힘들었던 2016년, 박근혜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자는 일환으로 열린 제8차 도민총궐기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집회로 그 어느때보다 더 뜨거웠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새해엔 부패 청산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길 기원했다.

## 送朴迎新 부패정권 청산 · 새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열린 '제8차 전북도민 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2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박근혜 구속', '재벌도 공범'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송박영신(送朴迎新·박근혜 대통령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을 주제로 진행됐다. 집회를 주최한 전북 시국회의는 부패한 정권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의 하나 된 마음이 이 문구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올해 마지막 촛불집회인 만큼, 이날 광장에서는 기존보다 더 많은 문화공연과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시민들이 옛 선비들이 사용하던 유건을

옛 선비들이 사용했던 유건을 쓰고 박근혜에 호령하는 퍼포먼스 진행

국악 공연 · 도내 집회 영상 상영 밴드 공연 · 현수막 찢기도 이어가

시민들 “부패세력이 정권 못잡도록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강조

쓰고, 부패한 박근혜 정부에 호령을 하는 '유건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전봉준, 정여립 등 부패한 정부에 앞장서 저항 운동을 벌여온 수많은 선비들을 배출한 지역인 만큼, 시민들은 그 정신을 기려 “박근혜야! 니가 니 죄를 알렸다!

최순실야! 니가 니 죄를 알렸다!”라고 호령하며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유건 퍼포먼스에 이어 자유발언, 어린이 합창단 공연, 무주 지역민들의 자유발언, 국악공연, 전북지역 촛불집회 영상 상영, 안태상 밴드 공연, 현수막 찢기 행사를 벌였다.

시민들은 무대 위 흥겨운 공연과 울동에 맞춰 두 팔을 흔들며 추운 날씨를 이겨냈다.

자유발언을 위해 무대 위에 오른 시민들은 “국민들에게 너무 힘든 한 해였다. 다시는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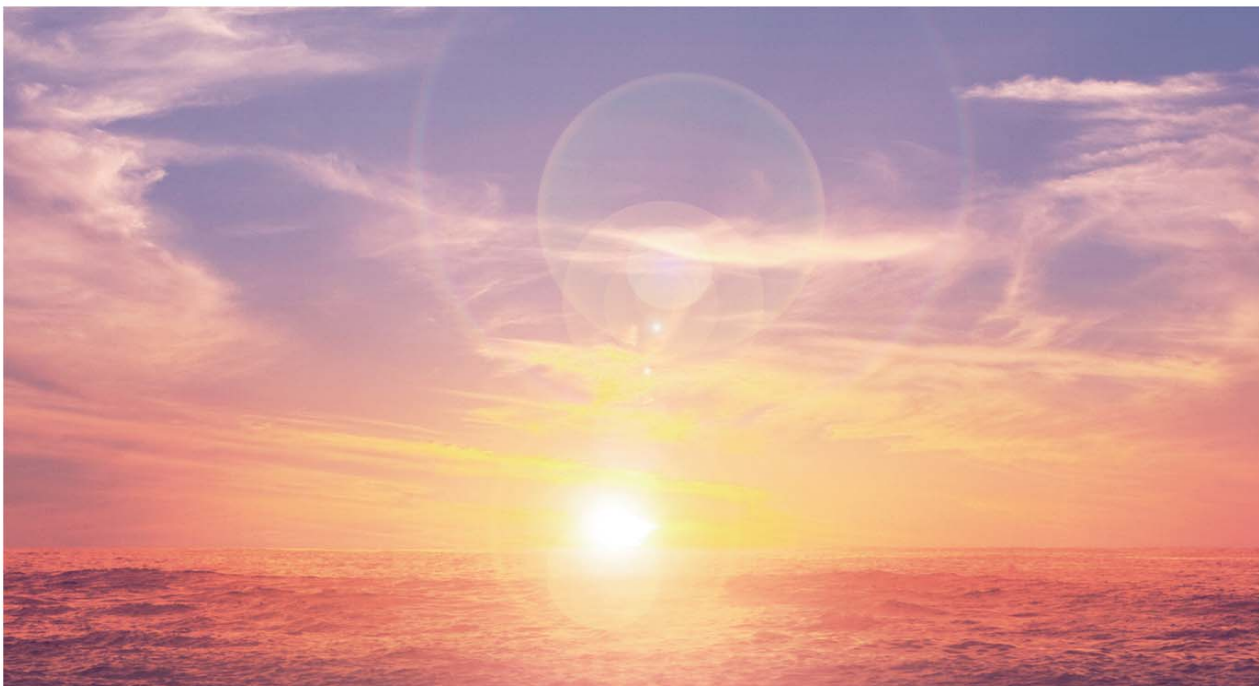
집회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참석해 촛불을 들었다. 문 전 대표는 정치

적 발언을 삼가고 시민들과 함께 지리에 앉아 '부패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 전 대표는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에서 당과 저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이날 전주 촛불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정권교체를 위한 길에 전북도민들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전북시국회의는 시민들과 함께 촛불집회를 마치고 주변 청소를 끝으로 지난해 마지막 민중총궐기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31일 현재까지 도내에서 8차례의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 기간 동안 8만여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다. /김민근 기자



www.jbbank.co.kr

# viva 2017

밝게 빛나는 태양처럼  
고객님의 2017년 한 해가  
눈부시게 빛나시길 기원합니다